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오진아¹⁾

1)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bstract =

Care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in Employment Mother's Home*

Oh, Jina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degree of care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while mother was employed. **Method:** A convenience sample of 107 grandmothers were measured for grandmother's care stress using a revised for of the PSI/SF and the quality of life tool by Andrew and Weinert.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using SPSS/PC 10.0 **Results:** The results found that grandmothers' care stress was high according to their age and religion. Their quality of life was low according to their age, their present health status, income and sleep pattern. Their subjective care stress was a sense of social isolation, burden of caring for grandchildren, health problems, and conflict with adult children. Care stress and quality of life were foun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care stress was high and affected quality of life. From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programs which consider grandmother' techniques in child care and health care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Ultimately, a good care environment for children will be good for the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Key words : Grandchildren care, Elderly women, Care stress, Quality of life

주요어 : 손자녀 양육, 조모, 양육스트레스, 삶의 질

* 이 논문은 2005년도 (주)태평양학술문화재단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교신저자 : 오진아

투고일: 2006년 4월 14일 심사완료일: 2006년 7월 11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h, Jina(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Gaegum-2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33 Fax: 82-51-896-9840 E-mail: ohjina@inje.ac.kr

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0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7.1%를 점하게 됨으로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1). 저출산은 고령사회의 진입을 부추기는데, 저출산의 주요원인은 취업에 따른 여성의 결혼기피와 기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Kim, 1998; Kim & Yoon, 2000).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8%로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취업 여성을 위한 양육지원 복지서비스는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아동의 양육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Kim, 2006). KIHASA(2002)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때문에 (49.1%), 일은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23.0%)라고 응답함으로써 전체응답자의 72.1%가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중단의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중 64.9%도 자녀양육 때문이었다. 그 중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MOGEF, 2005).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의 성장발달은 출생 전의 생물학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생후의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 혹은 조모 등의 돌보는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Oh, 2000). 예로부터 한국사회에서 조모는 손자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손자녀 양육을 기꺼이 담당하였는데, 젊은 자부세대는 끊임없는 가사노동으로 바빠기 때문에 조모가 이들을 거두고 보살피며 챙겨줄 의무와 책임을 느꼈다(Kim, 2006). 또한 직장에서의 은퇴, 가정 경제 주도권 이양, 가정 내 역할의 변화로 사회적, 가정적으로 공식적인 역할이 없는 조모는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소일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역할 참여 기회가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Suh, 1991). Lee, Cho와 Kang(2004)은 손자녀를 돌보는 역할수행은 취업모 가족에 대한 지원체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취업모 가족의 세대관계에 긍정적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서 많은 취업모들이 자녀양육의 대안으로 자녀의 조모 혹은 외조모에게 양육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Dongaiibo, 2001).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조모의 기간이 연장되고 핵가족화에 따라 1세대가족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지향하는 많은 조모들에게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뜻하지 않은 업무를 맡는 것으로서 새로운 부담감을 가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모가 되는 연령이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때이기 때문에 체력이 저하되어 있고 어린 아동의 돌보기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활동이기 때문에(Oh, 2000) 신체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MHW(2002)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한다. 게다가 여성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SunWoo, 2003; Shin & Kim, 2004), 조모의 양육 담당으로 건강문제의 발생 또는 악화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노년기는 가사와 육아에서 벗어나 친구나 친척 관계에서 사교적 활동을 추구하는 시기로서 손자녀 돌보기로 인한 활동 제한은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거기에다 신세대 취업모와 양육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가족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어 고부간의 마찰이 예상된다(Oh, 2000). 이와 같이 손자녀 돌보기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부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Dowdell, 1995), 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연구를 한 Na(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가에 주로 하는 활동 1순위가 손자녀 돌보기가 41.4%, 집안일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이한 것은 노인들이 집안일이나 손자녀 돌보기 등도 여가활동으로 여긴다는 것인데, 이는 집안일이나 손자녀 돌보기가 돈을 벌지 않는 일이고, 집에서 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를 '달한 여가'라고 명명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것을 여가활동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연구자에 따른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 있으나 가끔씩 자녀의 방문으로 손자녀를 돌보면서 조모로서의 기쁨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규명하는 선행연구는 없었다. 또한 모든 긍정적인 환경적 지원이 제공될 때에야 비로소 아동은 최적의 발달을 이루게 되므로 아동을 돌보는 자의 스트레스나 삶의 질은 아동의 인성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그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이 보람되고 생산적이며 전체 사회에 통합된 생애 단계가 되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연구에 기초자료로 삼을 뿐 아니라 나아가 아동건강과 가족간호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한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주관적인 양육스트레스 내용을 파악한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1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편의추출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손자녀의 어머니가 자영업이나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 직장에 취업하고 있어서 손자녀의 가족과 함께 기거하거나 근거리에서 살면서 손자녀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는 친조모 혹은 외조모 중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내용을 이해하며 본 연구목적을 알고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Kelly(1993)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손자녀를 전적으로 돌보는

40세에서 70세 조모 41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하였으며, Kelly, Yorker & Whitely(1997)도 같은 도구로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물질적, 법적, 심리사회적 신체적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Kim(2004)이 조손가정의 조모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자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이므로 대상자에 맞게 질문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도구에 대해서는 2005년 9월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동간호학 교수, 모성간호학 교수 각각 1인에게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받아 수정보완하였다. 도구는 조모 영역, 조모-손자녀 관계 영역, 손자녀 영역의 세 가지 하위 개념으로 분류된다. 응답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5점에서 175점까지이다. 조모영역과 조모-손자녀관계 영역의 가능점수 범위는 모두 12점에서 60점이며 손자녀 영역은 11점에서 5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변역 당시 C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4였다. 또한 손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대상자가 직접 기술할 수 있도록 "손자녀를 돌보시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주관적인 양육스트레스 내용을 측정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 삶의 질 측정도구

Andrew & Weinert(1976)의 삶의 질 도구를 기초로 Suh와 Oh(1993)가 수정보완한 도구로서 대상자가 생활, 자아, 일, 건강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걱정 정도, 사람의 형편, 장래에 대한 생각을 응답하는 5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18문항이다. 삶의 만족감 영역은 14개 문항은 '아주 많이 만족' 7점에서 '아주 많이 불만족' 1점의 Likert 척도이며, 행복감 영역은 '매우 행복' 3점에서 '행복하지 않음' 1점, 걱정의 정도영역은 '전혀 걱정하지 않음' 1점에서 '항상 걱정'의 5점으로, 그리고 삶의 형편과 장래에 대한 생각 영역은 '아주 많이 못해짐' 1점에서 '아주 많이 나아짐' 7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각 영역의 부정적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한 후 총점수를 삶의 질 점수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Suh와 Oh(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였다.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수집되었다.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내 2개 보건소와 1개 종합병원, 3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1개 초등학교에 손자녀와 함께 방문한

조모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가하기로 동의를 구한 후, 설문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렸다. 노인 대상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질문지 내용을 읽어주고 대상자의 대답을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질문지 총 120부를 배부하였으며, 작성 완료 후 회수하여 불완전한 자료 13부를 제외하고 총 107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10.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는데,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삶의 질과의 차이는 t-test, ANOVA로 검사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또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서술문항은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서 연령 분포는 50대가 50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6명(15.0%)이었다. 대상자의 결혼 상태로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80명(74.8%)이었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94명(87.8%)이었다. 교육 수준은 중졸이 39명(36.4%)로 가장 많았고 초졸과 고졸이 각각 31명(29.0%)이었다. 가족 형태로 돌보는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53명(49.5%), 노인부부가족은 41명(38.3%)이며 13명(12.0%)은 혼자 살고 있었다. 돌보고 있는 손자녀의 수는 1명이 63명(58.9%)으로 가장 많고 5명(4.7%)은 3명 이상이였다. 손자녀는 유아기가 66명(42.0%)로 가장 많고, 학령전기, 학령기, 영아기의 순이었다. 손자녀 어머니의 직업은 회사원이 33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자녀를 돌본 시기는 12개월 이하가 28명(26.2%)로 가장 많고, 5년 이상되는 경우도 20명(18.6%)이었다. 대상자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 이 44명(41.1%), 200-299만원이 34명(31.8%)이었다<표 1>

대상자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79.80(±14.43) 점으로 48점에서 117점의 범위를 이루고 있었다. 하위영역인 조모 영역은 평균 31.86점, 조모-손자녀 관계 영역은 평균 24.79점, 손자녀 영역은 평균 25.15점이였다. 한편 대상자의 삶의 질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삶의 질 점수는 65.07(±11.59)이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7)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나 이	40~49세	6(5.6)
	50~59세	50(46.7)
	60~69세	35(32.7)
	70세 이상	16(15.0)
배우자 동거유무	배우자와 동거	80(74.8)
	비동거(사별, 이혼)	27(25.2)
종 교	있음	94(87.8)
	없음	13(12.2)
최종 학력	초졸	31(29.0)
	중졸	39(36.4)
	고졸이상	31(29.0)
	무학	6(5.6)
가족 형태	손자녀가족과동거	53(49.5)
	노인부부가족	41(38.3)
	혼자살고있음	13(12.2)
손자녀 수 (n=157)	1명	63(58.9)
	2명	39(36.4)
	3명이상	5(4.7)
손자녀의 성별 (n=157)	남	85(54.1)
	여	72(45.9)
손자녀 발달기 (n=157)	영아기	19(12.1)
	유아기	66(42.0)
	학령전기	40(25.5)
	학령기	32(20.4)
손자녀 부모의 직업 (n=102)	회사원	62(60.8)
	전문직	10(9.8)
	자영업	13(12.8)
	서비스직	9(8.8)
	무직	8(7.8)
	회사원	36(33.6)
손자녀를 돌본시기 (n=107)	전문직	23(21.5)
	자영업	15(14.0)
	서비스직	19(17.8)
	공무원	14(13.1)
월평균 수입	1~12개월	28(26.2)
	13~24개월	15(14.0)
	25~36개월	26(24.3)
	37~48개월	7(6.5)
	49~60개월	11(8.4)
	61개월 이상	20(18.6)
월평균 수입	~199만원	44(41.1)
	200~299만원	34(31.8)
	300~399만원	17(15.9)
	400만원 이상	12(11.2)

있으며 7점을 기준으로 평점이 4.79점이였다<표 2>

삶의 질의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만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남편(5.79±2.00)이었으며, 자녀(5.23±1.27), 친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5.09±1.27)의 순으로 주변사람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았다. 반면에 만족 정도가 낮은 순서를 보면 건강상태(4.22±1.28)와 수입(4.25±1.37), 수면상태(4.28±1.15), 경제적 안정(4.31±1.22)의 순이었다<표 3>

<표 2> 손자녀 양육 노인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정도

(N=107)

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최소-최대)
양육스트레스총점	79.80	14.43	48 - 117
조모영역	31.86	6.86	17 - 57
조모-손자녀 관계영역	24.79	5.59	12 - 38
손자녀영역	23.15	5.89	10 - 38
삶의 질	65.07	11.59	34 - 87

<표 3> 삶의 질 문항의 순위별 점수

(N=107)

순위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남편	5.79	2.00
2	자녀	5.23	1.27
3	친구	5.09	1.27
4	전체적인 삶	4.73	1.15
5	일	4.61	1.44
6	성취	4.57	1.55
7	외모	4.56	1.09
8	개인생활	4.50	1.34
9	정신적 안정상태	4.50	1.17
10	자기자신	4.41	1.27
11	경제적 안정	4.31	1.22
12	수면상태	4.28	1.15
13	수입	4.25	1.37
14	건강 상태	4.22	1.28

종교($t=.076, p=.019$)는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모의 나이는 60대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50대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낮았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았다. 나이($F=6.804, p=.000$)와 종교($t=1.240, p=.026$)는 삶의 질 정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삶의 질은 60대가 가장 낮았고, 50대가 가장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았다<표 4>. 그 외 가족형태, 손자녀 수, 돌보는 손자녀의 나이와 성별, 손자녀 부모의 직업, 손자녀를 돌본 기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주관적인 양육스트레스 내용

대상자가 직접 기술한 주관적 양육스트레스 내용은 사회로부터 소외, 손자녀 양육부담, 건강문제, 성인자녀와의 갈등 등 4범주로 분류되었으며, 내용의 총수는 99개였다<표 5>. 사회로부터의 소외 범주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이 없음(17.2%), 불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조모의 나이($F=4.574, p=.005$)와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차이

(N=107)

특성	구분	양육스트레스			삶의 질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평균±표준편차	F or t	p
나이	40-49세	76.50±10.95	4.574	.005	66.50±13.22	6.804	.000
	50-59세	75.24±10.92			69.50±10.41		
	60-69세	86.26±17.09			58.86±11.10		
	70세 이상	81.19±14.38			64.25±10.06		
종교	있음	78.44±14.03	.076	.019	66.11±10.98	1.240	.026
	없음	87.56±14.65			59.13±13.48		

<표 5>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주관적 양육스트레스 내용 (총99개)

분류	빈도(%)	내용	빈도(%)
사회로부터 소외	32(32.3%)	개인시간 없음(운동시간포함)	17(17.2%)
		불일/모임 불참	12(12.1%)
		경제적 여유가 없음	3(3.0%)
손자녀 양육부담	31(31.3%)	고집 센 성격	9(9.1%)
		울고 보챈	5(5.1%)
		정리정돈 하지 않음	4(4.0%)
		손자녀 잔병치레	9(9.1%)
		손자녀 식사문제	4(4.0%)
건강문제	23(23.3%)	피로, 신체적 부담	13(13.2%)
		수면장애	9(9.1%)
		양육과 집안일 병행의 어려움	1(1.0%)
성인자녀와의 갈등	12(12.1%)	교육, 훈육으로 인한 갈등	11(11.1%)
		자녀들로부터 눈치	1(1.0%)

일이나 모임의 불참(12.1%), 경제적 여유가 없음(3.0%)이 있었고, 손자녀 양육부담 범주는 고집 센 성격(9.1%), 울고 보챔(5.1%), 정리정돈하지 않음(4.0%)등의 손자녀의 기질과 손자녀의 잔병치레(9.1%), 손자녀 식사문제(4.0%) 등이 있었다. 그 외 조모의 피로 및 신체적 부담(13.2%), 수면장애(9.1%), 양육과 집안일 병행의 어려움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문제 범주가 있었고, 성인자녀로와의 갈등 범주로 교육, 훈육으로 인한 갈등(11.1%)과 눈치(1.0%)의 내용이 있었다.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는 <표 6>와 같다. 조모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r=-.422, P=.000$).

논 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즐거움과 충만함이 가득하고 평온한 삶을 기대했던 노년기의 삶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개념의 조모 역할과 양육대리자로서의 현재의 역할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hrle & Day, 1994; Kim, 2004). Minkler, Roe와 Price(1992)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70%가 현재의 이 역할을 가치 있는 일로 느끼지만 동시에 기분이 저하되고 지치며 계속하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이에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삶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그 관계를 확인한 본 연구는 현 한국이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재고함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79.80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Chae, Kang, Lee와 Shin(1999)의 연구에서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 158명의 양육스트레스 74.14보다도 현저히 높고, 취업모 84명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한 Yoo, Lee와 Chae(1998)의 연구에서 직장타이를 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75.63, 가정타이를 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77.45 보다도 더 높다. 양육스트레

스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더라도 조모 영역이 31.86으로 Yoo 등(1998)의 27.67, Chae 등(1999)의 28.42보다 높으며, 조모-손자녀관계 영역이 24.79로 Yoo 등(1998)의 20.27, Chae 등(1999)의 19.73보다 높아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보다 조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모세대가 다양한 이유로 그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많은 노인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대리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Solomon & Marx, 1995), 많은 문헌에서 손자녀 돌보는 노인이 물질적, 법적, 심리 사회적,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Dowdell, 1995; Kelly, 1992; Kelly, Yorker, & Whitley, 1997). 그리하여 1990년대 초기부터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과 지지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Fuller-Thomson, Minkler, & Driver, 1997). 본 연구에서도 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높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이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은 같은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여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을 조사한 Suh와 Oh(1996)의 연구결과와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을 조사한 Kang(2003)의 연구결과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순위를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만족감은 비교적 높아서 남편, 자녀, 친구의 가까운 관계 순이었는데, 이는 Suh와 Oh(1996)의 연구에서도 사람에 대한 만족감은 다른 삶의 질의 문항보다도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Suh와 Oh(1996)의 연구에서 가장 순위가 낮았던 문항이 수입과 경제적 안정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상태도 낮게 나타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수입과 경제적 문제보다는 양육부담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외 문헌을 살펴보아도 손자녀 양육에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154명의 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Dowdell(1995)의 연구에서 조모의 45%가 신체적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Minkler et al.(1992) 또한 37%의 조모가 손자녀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맡게 된 이후부터 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

<표 6>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N=107)

변수	양육스트레스	조모영역	조모-손자녀관계	손자녀영역	삶의 질
양육스트레스	1.00	.78*	.83*	.75*	-.42*
조모영역		1.00	.48*	.30*	-.33*
조모-손자녀관계영역			1.00	.52*	-.29*
손자녀영역				1.00	-.38*
삶의 질					1.00

* p<.01

러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며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의 건강 상태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손자녀의 건강과 노인의 안녕(well-being)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Dowdell(1995)의 논의를 생각할 때 조모와 함께 손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과 간호학적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는 조모의 연령과 종교 유무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60대 연령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60대 연령은 이미 노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만성질환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연령이지만 많은 주의와 에너지를 손자녀 돌보기에 집중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노년기의 조모는 양육의 업무가 자신의 생애주기에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면서 스트레스와 생활의 불연속성을 경험하게 된다(Kim, 2006). 하지만, 삶의 과정에 대해 무엇이 나이에 적절한 생활사건이며 적절한 행동인가는 개인과 사회가 결정하며 조모 자신이 시간과 나이에 어긋난 역할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정의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Kim, 2006). 그러므로 손자녀 양육을 노년기에 보람을 주는 새로운 역할의 획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이에 어긋난 역할로서 나타난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영향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노화 혹은 노년기 받아들이기로서 생의 통합과 삶의 질 증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종교생활을 통한 사회적 활동이 주어지는 조모의 경우 종교가 없는 조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종교집단 및 종교적 활동이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손자녀 돌보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조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사한 Kelly(1993)의 연구에서 조모집단과 일반 여성의 표준집단과 비교할 때 사회적 고립감, 역할 제한, 배우자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조모집단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자의 44%는 임상적 범위로 고려되는 90백분위수 이상의 점수로 스트레스 정도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가장 큰 스트레스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한 Kim(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인 격리감이 가장 우선 범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손자

녀를 돌보는 조모가 부분적으로라도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임의 활성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도모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경제적인 측면의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취업모 가정의 조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이 적고 소득의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Dowdell(1995)은 자녀 양육에서 은퇴한 다음에 다시 양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부가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흔히 손자녀를 위한 책임을 진심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우선 자신의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Kim(2006)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성인자녀와 양육방식의 이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육부담-보상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갈등이 초래된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경제적 보상과 함께 정서적 보상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elly & Damato(1995) 역시 조모는 손자녀 돌보기 역할에서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양육스트레스의 내용에서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한 범주를 차지하는 만큼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보다 정서적 보상과 함께 성인자녀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더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성인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간호학적 접근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유의한 역상관계가 있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저하되어 있었다. 삶의 질은 물리적, 경제적, 신체적인 면과 함께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며, 삶의 질 향상은 외적 환경과 내적 만족의 향상을 뜻하는 즐거움과 복지의 지수이며, 인간존엄성에 토대한 개인 및 집단이 향유하는 가치의 총합이다(박성복, 1997). Lee와 Lee(2002)는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우울, 걱정, 외로움이 없고, 사회적으로 여가 활동이나 가족 내 의사결정권이 있고, 경제적으로 충족되는 4가지영역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함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취업모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손자녀를 주로 돌보는 조모를 위한 양육정보의 제공과 정기적인 손자녀와 조모의 건강검진 등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노년기의 보람된 일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정서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가진 조모로부터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받고 가정 내에서도 긍정적인 조손관계의 유지로 가족건강이 지켜질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동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1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을 노인에 맞게 수정하여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주관적 양육스트레스 내용을 측정하였고, Andrew와 Weinert(1976)의 삶의 질 도구를 기초로 Suh와 Oh(199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79.8(±14.43)점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타연구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삶의 질은 평균 65.07(±11.59)점이었다. 삶의 질 문항별 순위를 보면 남편(5.79±2.00), 자녀(5.23±1.27), 친구와 가까운 사람(5.09±1.27)의 순으로 삶의 질이 높았고, 건강상태(4.22±1.28), 수입(4.25±1.37), 수면상태(4.28±1.15), 경제적인 안정(4.31±1.22)의 순으로 삶의 질이 낮았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조모의 나이($F=4.574$, $p=.005$)와 종교($t=.076$, $p=.019$)였으며,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 역시 조모의 나이($F=6.804$, $p=.000$)와 종교($t=1.240$, $p=.026$)이었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주관적인 양육스트레스 내용은 사회로부터 소외(32.3%), 손자녀 양육부담(31.3%), 건강문제(23.3%), 성인자녀와의 갈등(12.1%)의 순으로 분류되었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유의한 역상관관계($r=-.422$, $P=.000$)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대상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함으로써 삶의 질 구조모형을 구축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및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ndrew, F. M., & Weinert,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rentice-Hall.
- Atchley, R. C.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 Chae, Sun-Mi, Kang, Hee-Sun, Lee, Han-Ju, & Shin, Hyun-Sook (1999). The Effects of Spousal Support on the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Life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3(2), 187-195.
- Dongailbo (2001).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521>
- Dowdell, E. B. (1995). Caregiver burden: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 risk grandchildren. *J Gerontol Nurs*, May, 8-13.
- Ehrle, G. M., & Day, H. D. (1994). Adjustment and family functioning of grandmothers rearing their grandchildren.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6(1), 67-82.
- Fuller-Thomson, E.,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Gerontologist*, 39(3), 406-413.
- Kang, Jung-Hee (2003). *The Effect of a Social Support Program on Burden and Well-being in Caregiver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Living in the Community*.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Kell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 Nurs Scholarsh*, 24, 331-337.
- Kelly, S. J., & Damato, E. G. (1995). Grandparents as primary caregivers. *MCN*, 20, 326-332.
- Kelly, S. J., Yorker, B. C., & Whitely, D. (1997). To grandmother's house we go... and stay. Children raised in intergenerational families. *J Gerontol Nurs* 23(9), 12-203
- KIHAS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2). *Childcare Program Evaluation*.
- Kim, Hye-Seon (2004). A Study of 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Attitude to Bring up, Care Stress on Grandchild's Adjustment i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J Korea Society Child Welfare*, 18, 85-117.
- Kim, Kyung-Hye (1998). *The child care situation of the dual career families of the middle class and relation variable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Kim, Lee-Jin, & Yoon, Chong-Hee (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47-58.

- Kim, Moon Jeong (2006) *The Experience of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Dissertation.
- Lee, Mi-Sook, Cho, Byung Eun, & Kang, Ran Hye (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Grandmother's Role Performance Toward their School-Aged Grandchildren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 Familie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69-85.
- Lee, Sun Hyea, & Lee, Jeong Seop (2002). A Concept Analysis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1(4), 588-59.
- MHW(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0).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 Minkler, M., Roe, K. M., & Price, M. (1992). Th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crack cocaine epidemic. *Gerontologist*, 32(6), 752-761.
- MOGEF(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5). *2004 The whole country Childcare and Education Survey*
- Na, Hang-Jin (2004). A Study on the role of leisure of the Elderly for upgrading of the quality of life. *J Korea Gerontol Society*, 24(1), 53-7.
- OECD. (2001). *OECD Republic of Korea Economy Report*.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Oh, Jina (2000). Concept Analysis for Nursing Theory Development: Childcare. *Nursing Science* 12(2), 26-36.
- Shin, Kyung-Rim & Kim, Jeong-Sun (2004). A Study on Health Concern, Self-rated Health,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Elderly Women in Urban Area. *J Korean Acad Nurs*, 34(5), 869-880.
- Solomon, J. C., & Mar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Gerontologist*, 35(3), 386-394.
- Suh, Dong In (1991). *Psychological Closeness Between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Kyung He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Suh, Mi Hae & Oh, Ka Sil (1993). A Study of Well-being in Caregivers Caring for Chronically Ill Family Members. *J Korean Acad Nurs*, 23(3), 476-486.
- SunWoo, D. (2003). Policy Issues for Maintaining Health of Elderly Persons. *Health and Welfare Forum*, 84, 23-29.
- Yoo, Il-Young, Lee, Kyung-Ja, & Chae, Sun-Mi (1998). A Comparative Study of the Parenting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Related to Child-Care Arrangements. *J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2), 159-169.